

서양 농업 도입한 일본의 근대 농학자

津田 仙(쓰다 센)(1837~1908년)

朴 星 來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박학사)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근대식 농업기술이 들어온 경우로는 안종수(安宗洙, 1859~1895년)의 「농정신편」(農政新編, 1885년)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개화에 꼭 필요한 책 몇가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을 정도였다. 당연히 이 책은 1885년 이후에도 두 여차례 인쇄되어 보급되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책은 바로 일본의 근대 농학자 진전선(津田 仙, 쓰다 센, 1837~1908년)의 농업 기술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안종수는 1881년 2월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수행원이 되어 일본에 갔고, 일본에 있는 동안 쓰다를 만나 그로부터 서양식 농업기술에 대해 듣고, 또 그의 책 「농업삼사」(農業三事)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가 어떻게 쓰다를 만났고, 어떤 접촉을 했던지는 밝힐 수 없지만, 22살의 안종수에게 44살의 쓰다가 대단한 인물로 보였을 것만은 분명하다.

31세대 통역으로 미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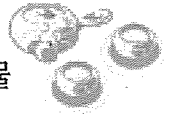
그렇다면 쓰다란 누구인가?

진전선(쓰다 센)은 명치(明治)시대 일본 개화의 주역이 거의 다 그렇듯이 사무라이(武士, 또는 士) 집안 출신으로 지금의 동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사쿠라(佐倉)에서 태어났다. 일본인들이 많이 그렇듯이 그 역시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어릴 때 이름이 바뀌어 진전선이 되었지만, 그를 낳은 아버지는 이름이 소도선우위문(小島善右衛門)이다. 원래 성이 소도(고지마)였던 셈이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천미(千彌)—선미(仙彌)를 거쳐 선(仙)으로 정착했다. 또 성 역시 1860년 동경(당시는 江戸=에도)으로 돌아와 이듬해 진전대태랑(津田大太郎)의 데릴사위가 되었고, 그 해 연말에 그 딸 초자(初子)와 결혼했으나, 그의 나이 25살, 초자는 24살이었다. 자연히 그의 성도 진전이 되어, 진전선이 그의 마지막 이름이 되었다.

진전이 서양식 농업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원래 1853년 일본에는 미국 해군 제독 페리가 들어와 개국을 요구했다. 서쪽 구주(九州)지방에서는 오랜 동안 화란 사람들이 들어와 무역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본의 중앙정부에 대포를 들이대고 개국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일본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근처의 영주들을 동원해 바다를 지키게 했고, 그 임무를 띄고 대포대(大砲隊)에 배치되었던 17세 소년병의 하나가 진전이였다. 그는 거기서 미국의 기술이 훨씬 앞서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말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일본에서 서양에 대한 연구가 난학(蘭學)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된 그는 우선 난학—즉 화란학문—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1856년에 시작한 화란어 공부에 이어 그는 바로 영어 공부로 그의 관심을 돌렸다. 영국과 미국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시작했던 까닭이다. 그리고 10년 공부 끝에 1867년에는 막부(幕府)의 재정 사무 담당자인 소야(小野友五郎)가 미국 가는 길에 그는 통역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31세였다.



서양농업기술을 도입해 보급한 일본의 근대농학자 쓰다 센(津田仙/1837~1908년)은 1882년 일본에 온 우리나라의 안종수(安宗洙)에게 「농업삼사(農業三事)」라는 책을 주어 우리나라에 서양농업기술을 증개한 장본인이다. 31세때 덕천(德川)시대 관리의 통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쓰다는 귀국 후 서양채소를 재배해 보급했으며 그 후 유학하는 딸을 통해 미국에 감을 보급하기도 했다.

이 미국행은 큰 영향을 주었으니, 10년이나 영어를 공부하기는 했으나, 처음으로 미국 사회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특히 그가 놀란 것은 남녀가 사이좋게 또 평등하게 즐기는 모습이였다. 그는 서양의 우수함에 놀라 서양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했고, 그의 결심을 '좀마케'(우리나라의 상투)에 해당하는 일본의 옛날 머리 모양) 자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말하자면 상투를 스스로 자른 셈이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머리를 다루기 곤란하여 잘라버렸다고 써 보냈다. 반년만에 귀국한 그를 본 동네 사람들은 "사무라이가 상투를 자르고 나타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면서 그의 아내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후 정부가 상투를 자르고 칼을 차지 못하게 명한 것은 1871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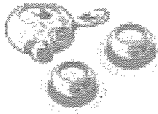
서양채소 재배 국산화

개국과 함께 그때까지 정치를 맡았던 덕천(德川) 막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연히 구정권 아래 막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진전 역시 새로 일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이 시키지(築地)의 호텔이었다. 지금 동경의 한 지역인 이 곳에는 마침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서양식 호텔도 있었다. 미국인 설계로 시작된 이 호텔은 3층 짜리로 1867년 7월 건축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8월 완성되었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건물로 이름날 정도였다. 객실 1백3개가 바다에 면하여 외국 배의 출입을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었다. 1869년 33살에 여기서 근무하기 시작한 진전은 외국인은 끼니

때마다 꼭 신선한 야채를 먹는데 이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서양 채소를 국산화해 보기로 결심했다.

당시 에도에서 할 일이 없어진 사무라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땅이 헐값에 나오는 시절이었다. 그는 1871년 호텔을 그만두고 근처(麻布)에 농장을 마련하여 특히 서양 야채 재배에 노력했다. 아스파라거스를 기르는 일은 쉽지 않아서 실패 끝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뒤져 공부한 끝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 사과와 딸기도 재배했는데, 특히 딸기는 일본 사람들이 그리 잘 먹지 않던 시절인데, 딸기 보급에 성공했다. 그는 자기 농장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딸기 철에는 딸기 파티를 했다.

이렇게 농업계에 이름이 알려지고,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까닭에 1873년 1월 3일 프랑스 선박을 타고 횡빈(橫濱: 요코하마)항구를 출발, 90일 만에 비엔나에 도착하여, 일본 대표의 한 사람으로 만국박람회에 참가했다. 여기서 그는 화란의 원예가 다니엘 호이프랭크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크게 감동한 그는 자료를 얻고 이를 중심으로 「농업삼사(農業三事)」를 지었고, 그 책이 다시 안종수의 「농정신편」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셈이다. 특히 그는 (1) 공기 파이프를 땅 속 깊이 박아서 공기가 토양 속으로 통하게 하면 비료 효과도 높고 깊게 갈아엎어야 하는 밭갈이 수고도 덜 수 있다. (2) 가지를 굵혀주어 영양분이 줄기로 물리고, 꽃과 열매로 물리도록 한다. (3) 인공수정 등으로 열매가 잘 생기고 빨리 성장하여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이런 세가지 새 농



사방법을 보급하기에 힘썼다.

아직 서양 농업 기술 소개책이 없던 때여서 그의 농사법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새 농사법을 보급하기 위해 1875년 '쓰다줄'(津田繩)이란 것을 고안해 냈다. 줄에 털을 붙이고 거기 꿀을 바른 다음 이것은 벼나 보리 꽃이 필 때 그 위를 훑어 주어 꽃가루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열매맺는 것을 돕는다는 기구였다. 처음 생산이 달릴 정도로 인기 높게 팔려나갔다. 심지어 명치(明治)천황은 1877년에 왕궁으로 그를 불러 보고 그 실험을 구경할 정도였다. 하지만 1881년에는 이미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시들해져서 사라지고 말았다.

일본 최초로 농학교 개설

일본에서는 또 그가 미국에 감을 보급한 공헌자로도 친다. '쓰다의 감'(津田柿)이란 말이 있었는데, 감을 미국에서는 하등 과일로 친다는 말을 듣고 그의 딸을 미국에 유학보낼 때 유명한 일본 감을 보내 보급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그의 둘째 딸(梅子)은 겨우 8살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하여 뒤에 진전의 이름을 기념하는 대학(津田塾大學)의 창시자가 된다. 그의 딸 이전에도 그는 농업교육에 진력하여 1875년 7월 동지를 모아 이듬해 1월 자신의 집(麻布本村町)에서 농학사농학교(學農社農學校)를 시작했다. 일본의 첫 농학교로는 보통 클라크의 샷보로(북해도)농학교를 치지만, 사실은 그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이미 진전이 농학교를 시작한 셈이다. 또 당시에는 이 농학교를 '일본 4대 사립학교'로 치기도 했다—북택(福澤諭吉)의 경응(慶義塾)을 비롯하여 中村正直의 同志社, 尺振八의 共立學社와 함께—

이 학교에서는 외국의 농업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수학교도 교육했다. 농업 실습이 필수과목이었으며, 훌륭한 농사꾼은 마음도 바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기독교를 기초로 하여 학교에는 정식으로 기도 시간도 있고, 선교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듣기도

했다. 또 농업전문의 「농업잡지」(農業雜誌)를 시작했다. “농업이야말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유익한 직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1902년 800호까지 발행되었다. 그러나 일본 농업의 근대화란 그의 개인 사업으로는 아주 벅찬 일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관립 농학교(뒤의 동경대학 농학부)를 시작하자, 1883년 그는 자기가 시작한 농학교를 해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1907년)까지 잡지는 계속되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는 기독교도로서도 일본 역사에 선구자였다. 1875년 1월 3일 부부가 기독교도가 되기로 서약하여 일본의 첫 감리교 교도가 되었다. 미국 여행에서 받은 감명이 그 기초가 되었던 셈이다. 또 기독교 선교사들과 함께 교육운동에 여러 가지로 힘썼던 까닭에 진전의 이름은 오늘날 몇개 학교에 창립자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동경의 청산(靑山)학원과 쓰쿠바대학 부설 맹(盲)학교 등이 여기 속한다.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였지만, 역시 기독교와 함께 술의 해독에 대해 주목하여 술을 끊고, 평생 금주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광산의 독(毒)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에도 가담한 일이 있다.

나이 60을 넘기면서 그는 당뇨와 신경통 등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63세에는 가마쿠라(鎌倉)로 이주해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뒷산을 산보하고 건강에 조심하여 그런대로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1908년 4월 23일 동경의 딸 부부 집에서는 친척들의 모임이 있었고, 여기서 하루를 즐긴 그는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던 기차 속에서 저세상으로 떠났다. 급성뇌일혈로 72세의 진전은 24일 오후 5시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진전은 1883년 6월 한국을 다녀간 일도 있는 것으로 김윤식(金允植)의 「음청사」(陰晴史)에는 적혀 있다. 아마 안중수와 만나, 그의 「농정선편」에 대해 지문을 해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연구해 보지 못하고 있다. 뒤에 밝혀 볼 생각이다. ①7